

TV 14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5 columns: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Rows show program schedules for various channels.

“막장드라마 논란 있었지만 ‘인과응보’ 잘 드러나 만족”

‘왔다! 장보리’ 성황리에 마친 김순옥 작가

“한번 보면 빠져드는 마성의 드라마”, “다음 회가 궁금해서 미칠 것 같은 드라마” 그리고 ‘해도해도 너무하는 막장 드라마’.

이런 평가를 함께 들은 MBC TV 주말극 ‘왔다! 장보리’가 지난 12일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이런 평가를 함께 들은 MBC TV 주말극 ‘왔다! 장보리’가 지난 12일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이런 평가를 함께 들은 MBC TV 주말극 ‘왔다! 장보리’가 지난 12일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이런 평가를 함께 들은 MBC TV 주말극 ‘왔다! 장보리’가 지난 12일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는 사실상 자기 입으로 말해버리면 모든 게 그냥 끝나 버리는 것이다.

막판에는 연민정의 발악이 연일 화제였다.

이유리가 연민정을 너무 잘해줬다. 물이 올랐다는 말이 맞는 것 같고 나조차 이유리의 연기를 보며 짝짝 놀랐다.

이런 평가를 함께 들은 MBC TV 주말극 ‘왔다! 장보리’가 지난 12일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이런 평가를 함께 들은 MBC TV 주말극 ‘왔다! 장보리’가 지난 12일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EBS

Table with 4 columns showing EBS program schedules for various time slots.

EBS플러스1

Table with 2 columns showing EBS Plus 1 program schedules.

EBS플러스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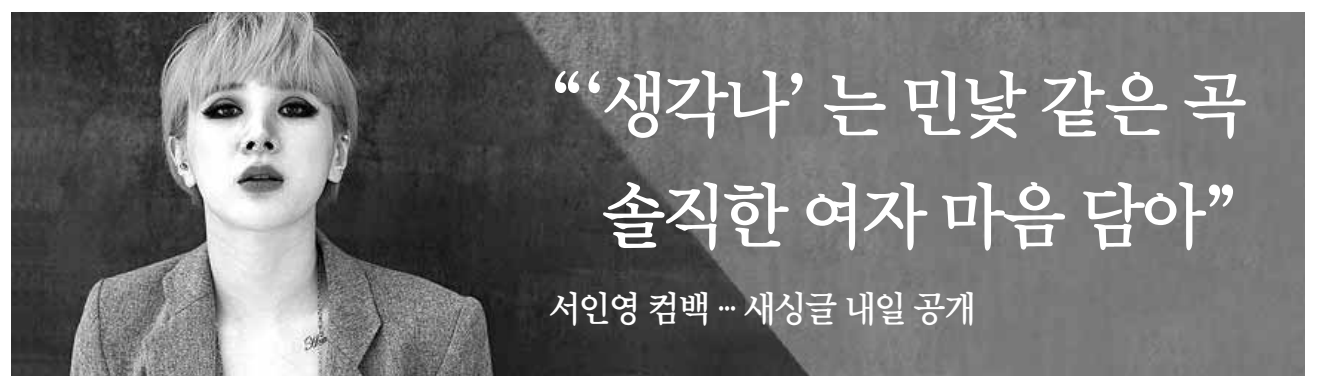
Table with 2 columns showing EBS Plus 2 program schedules.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0월 14일(음 9월 21일 戊午)

36년생 관심이 모아지겠다. 48년생 극복하려는 노력이 절실한 때이다.

42년생 상대의 반응에 예의 주시해야 하느니라. 54년생 문제점이 보이니 빨리 해소 해야겠다.



“생각나”는 민낯 같은 곡 솔직한 여자 마음 담아

서인영 컴백... 새싱글 내일 공개

질은 화장의 ‘신상녀’가 이번에는 ‘생일’(민낯)로 돌아온다.

13일 오후 서울 동교동의 한 레스토랑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서인영은 “생각나”는 나의 생일과 같은 곡”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그동안 생일보다는 화장을 진하게 하는, 속마음을 잘 보이지 않는 스타일을 좋아해왔다”면서 “이번에는 솔(Soul) 풍의 음악에 솔직한 여자의 속마음을 담아봤다”고 덧붙였다.

“생각나”는 헤어진 남녀 이야기를 원성도 높은 솔풍 음악에 실은 곡이다.

그는 “뭔가 아무리 센 척을 해봐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여자이니가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것 같다”라고 여운을 남겼다.

그는 “뭔가 아무리 센 척을 해봐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여자이니가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것 같다”라고 여운을 남겼다.

영화 ‘나의 사랑 나의 신부’... 박스오피스 1위

박중훈·고(故) 최진실 주연의 영화를 24년 만에 리메이크한 ‘나의 사랑 나의 신부’가 지난 주말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다.

13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면 ‘나의 사랑 나의 신부’는 지난 10일부터 주말 사흘간 전국 618개 상영관에서 48만5251명이 관람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날 개봉한 할리우드 액션 블록버스터인 ‘드라큘라: 전설의 시작’이 같은 기간 463개관에서 33만9568명 관객을 동원,

갔다.이번 노래에서 서인영은 싱어송라이터 자이언티(본명 김해솔·25)와 콜라보레이션(협업)했다.

그는 “곡을 들어보고 결정하겠다고 하셨는데 흔쾌히 해주신 거 보니 마음에 들었나보다(웃음)”면서 “녹음실에 새벽까지 머물면서 자기 노래처럼 열심히 해주셔서 많이 배웠고 나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감사를 표했다.

2012년 직접 기획사 ‘서인영 컴퍼니’를 설립해 자신의 길을 스스로 개척하고 있는 그는 “솔직히 힘든 점이 너무 많은데 나중에 보면 작품의 완성도 측면에서 더 보람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스스로 생각하는 자신의 ‘색’을 묻자 그는 여전히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고백했다.

“하나씩 보여드려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숙해지는 과정으로 생각해주세요. 이번에는 퍼포먼스보다 노래에 중점을 뒀어요. 하지만 뮤직비디오에 패션이 빠질 수는 없겠죠. 보는 재미가 있어야 하니까요.(웃음)”

노래는 15일 정오 공개된다.